

‘인간’ 그 자체를 위하여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천주교 한국 순교복자 수도회가 1990년에 현 주소지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에 개원한 한국 최초의 개방형 정신과 전문병원이다. 이 땅에 가톨릭교회가 전래된 이후 여러 차례의 박해로 인해 우리의 선조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던 시기가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유무형의 사회 악현상에 의하여 삶이 황폐해지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이유로 정신적 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과거의 순교자들을 현양한다는 것과 아울러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는 것은 순교자 현양이라는 복자 수도회의 창설 목적이다.

이진수 기자_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인간, 인권을 향한 영성 - 존재 그 자체, 최고의 가치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다.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람되심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이해하는 열쇠이다. 이 인권에 대한 특별한 이해는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의 진료 현장에서 진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과의 진료 상황에서 소홀할 수 있는 환우의 인권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태도이다. 환우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은 “환우권익체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정신과 치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호실(격리실)의 운영을 최소화 하고 강박 등의 안전장치 사용을 최소화 한다. 그 외에 환우들이 이용하는 병원 시설 및 구조물을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설치하고 활용한다. 우수한 대학병원 정신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마저도 환우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4개 병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입원부터 퇴원하기까지 회복의 정도만큼 병동을 옮기며 환우의 권익체계를 극대화한다. 매우 특화된 체계로서 국내 어느 병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넓고 수려한 병원 환경

해방의 영성 - 한국 최초의 개방형 정신병원

하느님은 해방자이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해방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온갖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해방 정신은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의 치료 방향에서 잘 나타난다. 병원시설 어느 곳에도 창살을 설치하지 않았다. 여타의 정신병원 건물구조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격리, 수용,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치유, 개방, 회복, 소통이라는 가치를 건축 구조물 안에 담고 있다. 개방형 정신병원의 구조는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해방을 안겨주지만 더불어 치료자의 왜곡된 관점을 해방시키는 인간해방의 도구가 되고 있다. 치료자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에서의 해방! 어느 치료자에게도 요구되는 영성이다. 해방되지 않는 치료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과연 치료자인가? 치료자가 지녀야 하는 해방의 영성,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신병원과는 다른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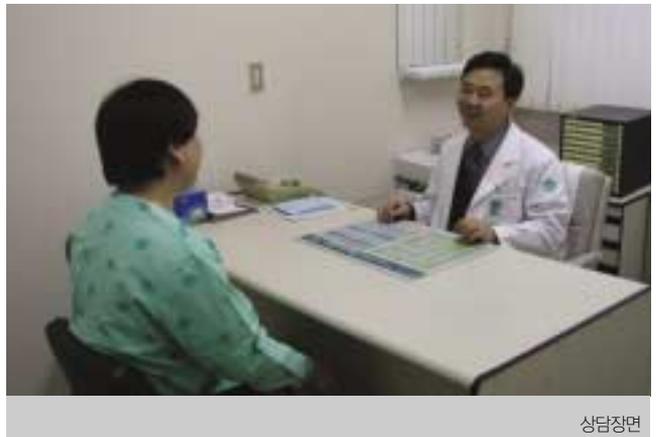
환경의 영성-인간다운 삶의 필수조건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확인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끊임없는 개발과 함께 파괴되고 있는 자연은 우리에게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빼앗아 가고 있다. 삶의 조건을 스스로 빼앗긴 인간은 자신의 정신영역도 빼앗겨 인간의 품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삶의 환경을 빼앗겨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에게 그 환경을 되돌려준다. 빼앗긴 정서와 감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넓은 숲과 수려한 경관을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유지하는 이유다. 그동안 빼앗겼던 시각적 공간과 정신적 공간을 통해 살아있는 정서가 서서히 환우들에게 되돌려진다. 이런 환경은 병원의 안(구조물)과 밖(주변환경) 어디서나 확연하게 드러나며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임상병리실



상담장면

교육의 영성 - 한국 정신과 진료환경의 진보를 유도

하느님은 당신 사랑으로 창조한 인간이 끊임없이 양성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신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정신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이며 정신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병원이다. 종합병원이 아닌 한 교육병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병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의료진의 우수성으로 확인되고 양질의 진료를 가능케 한다.

또한 교육된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치료팀(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전공의,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상사목자, 협심자, 자원봉사자)으로 구성되어 치료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타 정신치료가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랑거리이다. 이 병원에서 양성된 정신과 전문요원들은 이미 여타 병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의 치유이념을 확대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성당



임상심리과

책임의 영성 - 지역사회를 향한 애정

하느님께서서는 나자렛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나자렛과 갈릴리아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삶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특정지역 활동은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선적 선택이다.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분리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고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이천시는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게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의뢰했다. 지역의 우수병원을 정신보건 정책 및 사업수행의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현재 5명의 정신보건요원을 파견하여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향하여 환우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라고 호소하는 활동을 한다. 매우 중요한 가치다.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픔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되는 또 다른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정신건강은 이웃이 곧 내 자신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의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지지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의 증진을 꾀하는 사업이다. 정신질환자들은 특성상 지속적인 질병관리가 요구된다. 그럴 때 사회생활 능력의 향상, 의료비 감소, 가족의 고통분담이 되며 나아가서는 사회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가톨릭 치료 기관의 정체성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 “경천애인(敬天愛人)”, 성 김대건 신부의 사상이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을 명칭으로 하고 있다. 다양하고 교묘한 정신문화와 사회현상으로 인해 나날이 약해져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경천애인의 사상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단도박교육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원목실의 임무가 막중하다. 다른 정신병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원목사제는 치료받는 환우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회복의 기회를 안겨준다. 물론 가톨릭 신앙을 가진 환우들의 경우다. 원목실은 가톨릭 신앙을 지닌 환우들에게 경천애인의 정신을 회복시켜 준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순교자의 가르침이 확장되는 장(場)이다.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잘 알게 해주고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알게 하고 신앙으로 이끌고 도와준다. 순교자를 현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자수도회의 창설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구현된다.

아울러 타 종교를 신앙하는 환우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우의 신앙을 돕는 일반원리이다. 또한 이 같은 원리는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진료행위에 있어서 윤리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활동하며 어떠한 경우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우들을 보이지 않게 돕는다. 참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있는 힘껏 도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후원을 간절히 기대한다.

중독치료 재활센터

중독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전공의, 임상사목 신부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로 구성된 중독전문가 팀이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중독자의 단주(단도박/단약)의지

에 따라서 기본교육(2주)과 심화교육(8주)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이고 전문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

기본교육은 해독치료를 받으며 단주의지가 부족한 환우들에게 회복에 대한 인식 및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강의, 동기강화훈련, 명상, 심리극, 단주 메시지, 비디오 시청각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교육은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키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중독으로부터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프로그램은 아침명상, 자서전, 강의, MBTI 성격유형 이해하기, 단주모임, 단주 메시지, 집단치료, 자기사랑 프로그램, 미술치료, 심리극, 등산, 긴장완화훈련, 재활원자원봉사, 자조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원환우를 위한 사회사업과 프로그램

1) 재활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은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비롯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우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 지지함으로써 퇴원 후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종류를 보면 ①사회기술훈련 ②여가훈련 ③정신건강훈련 ④스트레스 관리 훈련 ⑤다이어트 ⑥연극치료 ⑦미술치료 ⑧사례치료 등이 있다.

2) 환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사업과에서는 환우 가족과의 면담 및 교육을 통하여 가족들이 환우의 치료 및 사회복귀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개설된 교육은 알코올 의존자 가족교육을 위한 교육 등이 있다.

입원환우를 위한 병동 프로그램

- ① 안정병동은 초기진단 및 증상관리 - 차모임, 요리요법, 꽃꽂이요법, 산책, 영화감상 등
- ② 반개방 병동(2개)은 증상해소 및 회복 - 차모임, 탁구대회, 요리요법, 꽃꽂이요법, 산책, 미술치료, 영화감상 등.
- ③ 개방병동은 재활 및 사회복귀 - 자치회의, 일일찾집, 야유회, 탁구대회, 요리요법, 꽃꽂이요법, 산책, 주말계획, 병동신문 만들기, 미술치료 등. 🐣

병원장 인터뷰



양운기(페르디난도) 수사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장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 방법은?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 중에서도 환우의 인권을 매우 중요시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함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환우를 쉽게 생각하여 인권을 소홀히 하고 환우 중심이라고 외치면서도 병원 중심, 또는 의료인 중심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끊임없이 인간 존엄에 대한 교육과 환우들의 목소리와 정신과 환경의 개선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철학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노력한다고 해도 화석처럼 굳어버리는 의료기관의 사고방식은 어쩌면 악령이다. 실제 우리 병원에서도 가끔 발견된다. 편견이 굳어진 현상이다. 이런 편견에서 해방되어야 함에도 사회의 시각이 견고하기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끊임없이 교육한다고 했지만 어느새 환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고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무서운 것이다. 정신과의 인권 상황은 늘 진보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정신과 환우를 바라보는 기계적 사고방식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환우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은 정신과 환경에서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우리의 노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듯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정신과 환경을 점검

할 때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을 모델로 삼아서 사전 준비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정신병원에서의 서비스 향상은 환우의 인권보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권과 서비스는 다른 단어이나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다. 인권이 보호되면 서비스가 향상되고 서비스가 잘 되면 인권보호도 더불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병원의 규모를 볼 때 매우 경영이 어려운 우리(200~300병상)에 속한다. 경영악화의 문제는 진료의 질과 직접 연결된다. 진료의 질이 하락된다면 병원의 설립 목적이 무색해진다. 특히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다른 병원들과 차별성을 두지 못하게 될 때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 가장 큰 고민이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처럼 중소형 병원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덩치가 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병원의 경우 그 특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이 전무하며 특히 정신병원에 대한 정책은 무지할 정도다.

차별화된 병원은 차별화되게 인정해 줄 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정신병원은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차별화된 진료를 해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에 발

전이 있을 수 없고 환경을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정부 정신보건 당국은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을 한국 정신보건기관의 자랑으로만 이용하면서도 지원이나 차별정책은 없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이 한국의 모든 정신병원 수준처럼 외부에 자랑하고 싶어한다. 정부가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다. 참 갑갑한 노릇이다. 그래도 우리의 사명이며 임무라는 믿음으로 살아 나간다.

그러나 기쁨도 있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이 개원된 이후 많은 정신병원들이 우리를 배우고 있다. 그것은 매우 큰 성과다. 우리가 세상에 기여한 부분이다. 존재의 이유다. 사명감으로 뚝뚝 땀 흘린 직원들이 고마울 뿐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우들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의 소득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경제문제는 정신과 환우들에게 치명적이다. 대안이 없다. 그런데 병원은 겨우 유지한다. 참으로 고민스럽다. 주위의 도움이 무척 필요하다. 교회로써, 수도자로써 마음이 타들어간다.

병원 설립을 위한 후원조직을 구성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선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의 손길을 기다린다. 